재외선거 신고·신청자수보다 투표자수가 많다는 주장

○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투표 신고인원은 6만여 명임에도, 실제 투표자수가 14만명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, **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**

○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신고·신청자수가 6만여 명이라는 주장이 있으나, 이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수*이고,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재외선거 신고·신청을 한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.

*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○ 또한 재외선거 투표자수가 14만명이라는 주장이 있으나, 이는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되어 국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수이고, 국외에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.

○ 위와 같이 재외선거 신고·신청자수보다 투표자수가 많다는 주장은 중앙선관위가 제공·게시한 보도자료와 통계자료를 잘못 이해하고, 과거 유사한 주장을 한 유튜브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